

'클린룸' 글로벌 No. 1, COVID-19 대응 앞장선다.

- 전세계 클린룸 60% 점유율의 Global No.1 기업
- 국내 최고의 Air Solution 기업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기여
- 음압시설 표준화 구축

최근 COVID-19 가 시작된 이후, 국내에 확진자들의 치료 및 감염여부 검진을 위해 필수적인 음압시설이 부족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음압병동의 수요가 많지 않고,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도 이러한 음압병동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기에는 이용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COVID-19 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음압병실 시설에 대한 보급과 운용이 절실히 필요해 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 클린룸 1 호 기업이며, 전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신성이엔지가 발 벗고 나섰다.

신성이엔지는 공기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한다. 이미 과거에도 신성이엔지는 국내 대형 병원 등에 음압시설을 설치한 이력이 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와 같은 고청정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환경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아 왔다.

신성이엔지는 최근의 국가 위기 상황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동과 설치'에 편이성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또 최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상생협업을 위해, 관련 분야의 중소/스타트업인 에어랩과 스페이스업에 그동안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여 제품 생산 및 설치,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에는 현재의 개발 제품의 최적화와 고도화와 더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쪽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제품군을 연구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최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신속하게 보급되고 설치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면서,

"중견기업으로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과의 협업은 당연한 의무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국가 산업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 측에서는 "COVID-19 확산으로 다양한 의료시설에 이동형 음압기가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음압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관련 기업들과 연구협력을 통해 제품의 성능평가 방법과 인증평가 표준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 월 24 일 신성이엔지는 에어랩, 스페이스업과 원주 스페이스업 본사에서 스마트 음압시설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



(사진 : 이동형 스마트음압병동)